

한국 야구史 ‘안·치·흥’을 새기다

KBO 역대 세번째 2루수 100타점... 최다타점 기록 경신 눈 앞 21 홈런·0.346 타율 개인 최고의 해...10년째 나눔활동도 귀감

삼성 라이온즈와의 14차전이 열린 18일. 타이거즈 역사에 의미 있는 숫자 2개가 채워졌다.

이날 '말형' 임창용이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마운드에 서면서 1995년 6월 18일 대구 시민구장에서 시작된 그의 경기 출장수가 '1000'에 이르렀다. 한-미-일 통합 1000경기 날, 임창용은 6이닝 7피안타(1피홈런) 2볼넷 6탈삼진 3실점의 피칭으로 시즌 4승에 성공했다. 이날 승리는 4853일 만에 기록된 임창용의 원정 선발승이기도 했다. 임창용은 2005년 6월 5일 무등경기장에서 마지막 원정 승리를 기록했었다.

임창용의 1000경기를 승리로 빛나게 한 또 다른 주인공은 '100타점'의 안치흥이었다.

2회말 대량 실점을 막은 호수비를 선보인 안치흥은 1-1로 맞선 3회초 1사 만루에서는 보니아의 2구째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 넘어가는 그랜드슬램을 장식했다.

안치흥은 팽팽하던 분위기를 KIA로 기울이게 한 결정적인 한 방으로 KBO리그 2루수 역사에 또 다른 점도 찍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99타점이었던 안치흥은 한 번에 4타점을 쓸어 담으며 입단 10년 만에 처음 100타점 고지를 밟았다. 이는 홍현우(111타점·1999년), 나바로(137타점·2015년)에 이어 역대 2루수 세 번째 기록이다.

안치흥은 지난 6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도 8회말 1-2의 승부를 뒤집는 만루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날 개인 통산 세 번째 만루 홈런으로 개인 최고 타점 기록을 93점에서 95점으로 늘렸던 안치흥은 다시 한번 만루에서 해결사가 되며, 100타점 기록도 만들었다.

개인 최다 타점 기록을 갈아치운 뒤 "아직 100타점을 하지 못했다"며 100이라는 숫자를 올려뒀던 안치흥은 이제 더 큰 목표에 도전한다.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올 시즌을 달리고 있는 그는 타이거즈 2루수 최다타점 기록 경신을 앞에 두고 있다.

안치흥은 올 시즌 108경기에서 103타점을 만들며 경기 당 평균 0.95점을 기록하고 있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남은 22경기에서 21점을 더하게 된다.

나바로를 넘어서기에는 부족하지만 홍현우의 자리는 충분히 넘볼 수 있다.

개인 최고의 시즌은 이미 예약해뒀다.

18일 현재 21개로 지난해 작성한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를 이뤘고, 0.346의 타율을 찍으면서 2014년 0.339보다 앞서었다. 143개의 안타도 때려내면서 지난해 154개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아시안게임 강행군을 하고 돌아오면서 9월 12경기 타율은 0.217로 푹 떨어졌지만, 안치흥의 결정력은 여전하다. 꾸준하면서 강렬한 모습으로 타이거즈 최고 2루수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타이거즈의 대표 선수다.

팬서비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프로야구계지만 안치흥은 팬들 앞에서 슈퍼스타의 모습을 보이며 사랑을 받고 있다. 2009년 신인 시절부터 기부활동을 하며 프로선수의 품격도 보여주고 있다.

프로 첫해 '1안타 1도루 후원 협약'을 맺고 기부를 약속했던 그는 2013년에는 자청해서 적립 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경찰야구단에서 복무했던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00만원을 기부하면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박수받는 안치흥이 타이거즈 2루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흥

복귀 준비하던 봉중근 은퇴 선언

어깨 수술 극복 못해...LG, 28일 잠실구장 KIA전서 은퇴식

LG 트윈스의 베테랑 좌완 투수 봉중근(38)이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LG 구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중근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는 오는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홈 경기에서 봉중근의 사인회와 시구 및 은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봉중근은 지난해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조브 클리닉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앞서 2004년 어깨 수술, 2011년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경력이 있는 봉중근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또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이 때문에 봉중근의 마운드 복귀에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봉중근은 올해 5월 복귀를 목표로 의지를 불태웠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봉중근은 1997년 신일고 재학 중 미국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입단했다. 2002년 메이저 리그 무대까지 밟았다.

신시내티 레츠로 트레이드된 2004년까지 메이저 리그 통산 7승을 올린 봉중근은 2007년 1차 지명으로 LG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로 복귀했다.

그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선발로 나서서 두 자

릿수 승수를 쌓았다.

2012년부터는 팀의 취약한 뒷문을 보강하기 위해 마무리 투수로 보직을 전향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봉중근은 3년 연속 25세이브를 달성했다. 특히 2013년에는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38세이브)을 세우며 LG의 11년 만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었다.

2015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든 봉중근은 KBO리그 통산 321경기에서 55승 46패 2홀드 109세이브 평균자책점 3.41의 성적을 남기고 유니폼을 벗었다.

대표팀에서도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준우승,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에 이바지했다.

/연합뉴스



광주 FC의 마스코트 허니가 19일 품앗이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안전 도우미로 나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광주 FC 제공)

거리 나선 화니 "광주 FC 경기 보러 오세요"

22일까지 초·중·다중집합장소 홍보활동 ... 경기장, 추석 연휴 경품도

프로축구 광주 FC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중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광주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 시티즌과의 홈경기에 맞춰 22일까지 지역 초·중학교 및 다중집합장소에서 거리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앞서 광주는 18일 상일중학교, 품앗이사거리 등에

서 홍보 활동을 시작했으며, 19일에는 사무국 전 직원과 김혜성 등 선수 4명 등이 품앗이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안전 도우미 활동을 하며 홈경기 일정을 알렸다.

광주는 23일 홈경기 전까지 매일 오후 지역 초·중학교 하고 시간에 맞춰 안전도우미 활동을 하며 경기 홍보에 나서고, 퇴근 시간에는 지역마트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광주 FC를 알릴 계획이다.

추석 연휴에 펼쳐지는 홈경기를 맞아 푸짐한 경품도 준비했다.

광주는 경기 당일 관중들에게 홍삼, 한과, 참치 등 추석 선물세트와 함께 2018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 나상호와 브라질 특급 골잡이 펠리페의 친필 사인본,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또 남문매표소에서는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떡메치기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관계자는 "고향으로 모인 가족과 친지들이 축구장에 모여 경기도 보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황희찬 '두각'

獨 2부리그 두번째 경기만에 데뷔골...함부르크 선두 전인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무대를 옮긴 황희찬(22·함부르크)이 두 번째 경기에서 팀 승리를 견인하는 데뷔골을 폭발했다.

황희찬은 19일 독일 드레스덴의 DDV 슈타디온에서 열린 뒤나모 드레스덴과의 2018-2019 2부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23분 이 경기의 유일한 골을 폭발해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오스트리아의 강팀 잘츠부르크에서 뛰던 지난 달 말 함부르크로 임대돼 두 번째 경기에 나선 황희찬의 시즌 첫 골이다.

임대가 확정됐을 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이던 황희찬은 금메달 획득 이후 국

가대표팀에도 합류해 코스타리카, 칠레와의 평가전을 치르고 함부르크에 합류했다.

독일로 가서 첫 훈련을 시작한 지 사흘 만인 15일 하이덴하임과의 리그 홈 경기부터 풀타임을 뛰었을 정도로 황희찬은 큰 기대 속에 독일 생활을 시작했다.

이날 전반 드레스덴과 전반 득점 없이 맞선 함부르크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황희찬을 투입해 골문을 노렸고, 황희찬은 기대에 부응했다.

분데스리가에서 사상 처음 강등돼 이번 시즌 2부리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함부르크는 5경기에서 4승(1패)째를 거둬 리그 선두(승점 12)로 도약했다.

/연합뉴스

몸 푼 손흥민

UEFA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선발...팀은 인터밀란에 역전패

손흥민이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 시즌 첫 선발 출전했으나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은 패배한 역전패를 당했다.

손흥민은 19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시로에서 열린 인터밀란과의 2018-2019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1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후반 19분 루카스 모라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첫 선발 출전 경기였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문제를 해결한 그는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의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지난주 토트넘에 복귀했다.

15일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교체 출전으로 컨디션을 조절한 그는 이날 처음으로 선발로 나섰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토트넘은 1-0으로 앞서던 후반 막바지 두 골을 연이어 내줘 1-2로 역전패했다.

한편 메시는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를 따돌리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헤트트릭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시즌까지 호날두와 함께 통산 7차례 헤트트릭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헤트트릭' 기록을 공유했던 메시는 호날두를 제치고 이 부문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